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18과 침례

[막16:16]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회개에 대하여 또 중생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침례를 여러 번 언급하였다. 이제 이 과에서는 침례 예식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침례는 회개와 중생, 그리고 교회와 다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예식이다.

1. 침례는 예식은 어떻게 하는가?

[마3:16]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침례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물속에 잠갔다가 올리는 예식이다.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서 침례를 베풀었다.

[요3:23]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엡4:5]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침례는 형식도 의미도 오직 하나이다. 그러므로 침례라고 하며, 머리에 물을 떨어뜨리는 형식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 좋은 대로 변경한 것일 뿐이다.

2. 누가 침례를 주거 누가 침례를 받는가?

[막16:16]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행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침례는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받는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다. 지금은 목사들이 침례를 주장한다.

[마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4:2]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워서 지키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성경 공부해야 하고 배운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한다. 이것이 침례를 받는 의미 안에 포함된 것이다.

3. 침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마3:1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침례는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침례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할 때 의를 이루게 된다. 의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롬6:3-5]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 침례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을 표상하는 예식이다.

[골2:12]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가르친다.

[갈3: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없이 세상의 육체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죄의 몸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우주 앞에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된다. 의를 이룬 것이다. 침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을 인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다.

[벧전3:21]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은 반드시 침례를 받는다.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표상하기 때문에 사람을 물속에 잠기도록 해야 바른 예식이 된다. 물속에 있는 순간은 숨을 쉬지 않는다. 숨을 쉬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은 것을 확실히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의 바른 표상이 되는 것이다.

4. 누가 침례 예식을 제정했는가?

구약성경에 침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데, 신약성경에서 침례요한으로부터 갑자기 침례가 시행되는 장면을 본다. 그래서 학자들은 침례의 기원에 대하여 구구한 가설들을 내어놓는다. 에세네파에서 유래했다거나, 구약의 결례에서 유래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침례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가르쳐준다.

[요1:33,34]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마21:24,2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나 사람에게로서나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마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침례는 하나님께서 친히 침례요한에게 명하여 제정하신 예식이며,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명하여 세우신 예식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5. 구약성경에 침례의 예표가 있는가?

신약성경에 침례가 누구에게서 유래되었는지 분명한 말씀이 있지만 구약성경에는 분명한 예표가 있다. 신약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침례의 예표라고 해석하였다.

[벧후3: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리 잊으려 함이로다.

성경은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했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태초에 이 땅에 물에서 나온 사실을 지적하는데, 그것은 거듭나는 일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창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성립할 때에 물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었던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다. 중생도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물은 침례의 표상이 된다. 이 지구가 태어날 때 물과 성령으로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도 역시 그렇게 거듭나게 된다.

[마19:2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에서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 “팔링게네시아(παλιγγενεσία)”인데 거듭난다는 말이다. 처음에 창조된 지구도 바로 그와 같은 상태로 창조된 것이다.

[벧전3:20,21]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21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은 노아 때의 홍수가 침례의 표상인 것을 계시한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표상이다. 침례가 바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을 표상하는 예식인 것이다.

노아 때에 죄에 대한 것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다 죽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로 한 것들만 살게 된 것을 보여준다.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의 존재와 생명을 반납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을 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자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팔링게네시아는 존재로 복귀되는 것을 뜻한다.

[고전10:1,2]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실을 침례라고 계시한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으로 애굽에 대하여 그들이 죽었고 애굽이 그들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내게 대하여 죽는 것을 표상한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 나왔다. 광야는 교회를 표상한다. 이제 그들의 생활의 터가 바로 광야이다. 우리도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생활의 터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

침례의 두 가지 기능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다. 즉 입교하는 기능이 있다.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교훈을 따라 예수를 믿겠다는 것뿐 아니라, 침례 받는 교회에 입교하여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훈들을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된 것이다.

6. 침례를 받을 자격은 어떠한가?

침례 받을 자격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죄인이 된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 없이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을 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면 침례를 받을 자격을 갖춘 것이다.

[행8:36,37]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팔호 안의 37절은 난하 주에 있다.

[행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도록 정직하게 결심하고 실천하기로 하면 된다.

7. 침례 받은 결과는 무엇인가? (3번 침례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보라).

- 1)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
- 2)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 3)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는다.
- 4) 새 생명으로 산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 5)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려 한다.

8. 침례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면 성경을 배우게 된다. 성경을 배우려고 열심을 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배우고 들은 대로 생활하려고 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받은 후에도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마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벧전2:2]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침례 받은 후에는 더욱 열심히 말씀을 배우려고 애써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전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